

전남대 글로벌 혁신전략 '우주항공산업' 대형 심포지엄 개최

CNU NEWS



전남대학교가 글로벌대학 30 혁신 전략의 하나로, 고흥에 우주항공 특화 캠퍼스 구축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남대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공동 주관해 6월 27일 열린 '전남 우주항공산업 추진현황 및 국내외 산업동향 심포지엄'에서는 ▲전남 우주항공산업 추진현황(전남도, 고흥군) ▲민간발사장 구축 계획(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계획(KCL) ▲소부장 특화단지, 우주항공 핵심전략기술(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KEIT) ▲국내 우주항공기업 실태 및 동향(우주기술진흥협회) 등이 발표됐다.

특히, 전남대는 ▲우주항공 추진계획을 통해 고흥캠퍼스를 신설하고, 다학제 기반 우주항공분야 교육 및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R&D 기술 지원 및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